



21

장

예배와 안식일

—Of Religious Worship, and the Sabbath Day—

1항 본성의 빛(light of nature)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¹⁾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可見的)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²⁾

2항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³⁾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⁴⁾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⁵⁾

1) 롬 1:20, 행 17:24, 시 119:68, 렘 10:7, 시 31:23, 17:3, 롬 10:12, 시 62:8, 수 24:14, 막 12:33. 2) 신 12:32, 마 15:9, 행 17:25, 마 4:9, 10, 신 4:15-20, 출 20:4-6, 골 2:23. 3) 마 4:10, 요 5:23, 고후 13:13, 계 5:11-13. 4) 골 2:18, 계 19:10, 롬 1:25. 5) 요 14:6, 딤후 2:5, 엡 2:18, 골 3:17.

제2장 1-2항의 교훈

- (1) 자연계시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는 충분하다.
- (2) 그러나 그 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기에는 불충분하다.
- (3)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 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을 따라…또는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4) 오직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합당한 대상이 된다.

(5)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신다.

이미 앞에서(제1장) 자연계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계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예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결국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낙원에서 무죄한 인간의 예배는 직접적인 것(즉 중보자나 구주 없이 직접 예배 드리는 것)이었는데 반(反)하여, 죄로 인하여 인간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두 가지 면으로 영향을 끼쳤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창 3:22-24),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이같이 쫓겨남으로 인하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이 쫓겨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과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쓸 방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기에 사건의 성격상, 참된 예배는 신적 규정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즉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한정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규정되었다**는 말이다.

(1)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바 예배가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배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명령되고, 요구되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가인의 예배는 아벨의 것과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가인이 그의 예배를 바꾸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했던 것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요구된다고 하는 원리를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거나 명하신 것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다(막 7:7).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하고” 바알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을 때,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닌” 것을 행한 데 있었다(렘 19:5).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기”(레 10:1) 때문에 여호와와 불로 소멸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명령)된 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거짓된 예배이다.

(2) 이 원리(참 예배는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된다)는 필연적으로 참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의하여 제한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드러지는 예배에 있어서 어떤 것들만을 명하셨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다. 본 장의 3항-5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① 기도, ②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 ③ 시편들을 노래하는 것, ④ 성례의 집행, ⑤ 맹세와 서원,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엄숙한 서원과 금식들을 제정 또는 규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예배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예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같은 그의 명령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만들어 내거나 고안해 낸 것은 무엇이냐 그가 싫어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였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제정(규정)되어 있다 하면 반드시 그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쉽지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렘 18:12)고 말한 옛날 사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늘 생각하기 쉬운 인간의 마음의 죄악성 때문이다. 그러기에 참된 예배의 원리에 대항하는 원리가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에서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을 준봉(遵奉)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널리 용납되어 왔던 것이다. 이 견해대로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셨던 것도 부가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두 견해를 다음과 같이 도표 4에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림 A」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B」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적법한 예배의 일부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의 예배에는 많은 수의 예식들과 상징들과 활동이 허락되어 있고,

그것들은 이러한 그릇된 원리에 근거하여 변질되거나 첨가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헛된 것이다(마 15:9). 왜냐하면 그것은 그 배후에 숨겨진 인간의 의지 외에는 다른 어떤 인정도 없기 때문에 거짓된 예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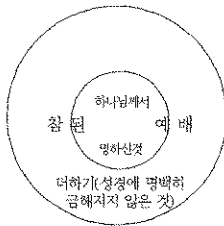
도표 4

[그림 A]



거짓 예배
하나님이 명하신 것
이외의 모든 것

[그림 B]



거짓 예배
하나님이 명백하게
책망하시고 금하신 것

이런 것들은 ‘자의적(自意的) 숭배’에 있어서 외관상 지혜롭게 보이나,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골 2:23). 자의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대신 우리 자신의 의지를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원리를 떠나서는—이 신앙고백서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이 원리를 잃어왔고, 자금도 없고 있는 실정이다.—참된 예배의 순수성을 수호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오늘날 흔히 드러지고 있는 촛불 예배는 어떤 명령에 근거를 둔 것인가? 만일 프로테스탄트들이 창안한 이와 같은 “예식”이 먼저 제거되지 않는다면 로마 교회에 의하여 창안된 예식들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고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제정(규정)되고 또한 제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오직 두 가

지의 범주만이 존재한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적법하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은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명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여질 수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하여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제1장 6항). 이 “격식들”은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예배의 격식들과 예배 자체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회중의 공예배(公禮拜)가 몇 시에 드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주님께서는 예배 처소의 모형·양식·크기를 규정하지 않으셨다. 사건의 성격상 이러한 격식들은 나라마다, 계절마다, 장소마다 각기 다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일반 법칙이 있다. 회중들은 주일(主日)날 어떤 장소에 모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 법칙에 의해 격식에 따른 특정한 상황이 통제된다. 그러나 회중이 약속한 장소에 모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3위, 곧 성부·성자·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는 제2장 3항에서 다른 하나님의 교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A.A. Hodge)가 지적한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점을 이론과 실제 양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로마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1) 동정녀 마리아와 다른 성자들과 천사들에게 일종의 종교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2) 곤경에 처한 때는 그들에게 간구하여 도움을 청해야 한다.

(3)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게 중재할 수가 있다.

(4) 하나님께 성자들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구원을 구하고 또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다.

(5)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그림들, 형상들과 유골들은 교회에서 보존하고 또 숭배되어야 한다(트렌트 종교 회의의 신조들을 참고할 것). “로마 교회는 우상 숭배의 비난을 면키 위하여 ① 라트리아(Latria), 즉 하나님께만 드러져야 하는 최고의 종교적 예배와, ② 둘리아(Doulia), 즉 등급에 따라 성자들과 천사들에게 정도에 맞게 드러져야 하는 열등한 종교적 예배를 구별한다(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만 드러져야하는 예배는 하이퍼둘리아(Hyperdoulia)로 표기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① 하나님과 동정녀와 또는 성자들과 천사들에게 각각 드러야 하는 직접 예배와, ② 예배의 대상을 예배자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림이나 형상에 근거하여 드리는 간접 예배를 구별하고 있다”(The Confession of Faith [London: Banner of Truth, 1958], p. 273).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론적인 많은 건전한 논증들이 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 신 6:13)고 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로 말미암아 여타의 다른 존재를 예배하는 것이 논박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만을 경배하라고 명하셨다.

(2) 성경은 또한 사람들과 천사들에 대한 예배를 분명하게 금하고 있다(행 14:14, 15, 골 2:18, 행 10:25, 26 등).

(3) 제2계명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나 또는 우리가 그를 숭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림들이나 형상들을 사용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하고 있다(참조, 『대요리문답』, 109).

(4) 성자들은 그들이 하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초인(超人)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예배를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데 필요한 신적 속성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5)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고 말씀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중보자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에게 속해있는 절대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해 두는 바이다. 우리가 만일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일단 인정하게 되면 - 만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단 한 가지 요소라도 첨가해도 괜찮은 것으로 일단 허락하게 되면 - 라트리아와 돌리아, “직접” 예배와 “간접” 예배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사곡한 논증들과 구별들을 반박하기가 심히 어렵게 되고 만다. 오늘날 개신교가 성화나 예식들과 같은 것으로 점차 되돌아가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참된 예배의 규정하는 원리를 굳게 고수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원리 - 즉 명확해진 것은 옳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릇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끝까지 고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배의 순수성이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질문 54】

1. 참된 예배는 타락 이후로 무엇을 고려에 넣어야 하는가?
2. 참된 예배가 “제정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 참된 예배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타죽었는가?(레 10:1, 2)
5. 개혁주의 견해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유형의 예배가 있는가?
6. 비개혁주의 교회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유형의 예배가 있는가?
7. “자의적 숭배”란 무엇인가?
8.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어떤 격식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9. 격식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행동을 통제하는 일반 법칙을 들라.
10. 로마 교회에 따르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11. 로마 교회에 따르면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2. 이같은 예배를 반박하는 논증을 몇 가지 진술하라.
13. 오늘날 개신교가 왜 로마 교회를 반박하는 논증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흔히 약화되어 있는가?

3항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⁶⁾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⁷⁾ 기도가 열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聖子)의 이름으로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¹⁰⁾ 사려분별(思慮分別)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¹¹⁾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¹²⁾

4항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의한 것들과³⁾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⁴⁾ 죽은 자들이나⁵⁾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¹⁶⁾

6) 빌 4:6, 딤후전 2:1, 골 4:2. 7) 시 65:2, 살전 5:17, 18. 8) 요 14:13, 14, 뱀전 2:5. 9) 롬 8:26. 10) 요일 5:14. 11) 시 47:7, 전 5:1, 2, 히 12:28, 창 18:27, 약 1:6, 7, 5:16, 막 11:24, 마 6:12, 14, 15, 골 4:2, 엡 6:18. 12) 고전 14:14. 13) 요일 5:14. 14) 딤후전 2:1, 2, 요 17:20, 삼하 7:29, 룻 4:12. 15) 삼하 12:21-23, 눅 16:25, 26, 계 14:13. 16) 요일 5:16.

제21장 3-4항의 교훈

- (1) 기도와 감사가 참된 예배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즉 하나님에 의하여 명하여지고 제정되어 있다).
- (2) 그러한 기도는 오직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져야 한다.
- (3) 기도를 합당하게 드리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의 규칙이 필요하다.
- (4) 기도는 일반적인 언어로 드러야 한다.

기도가 성경의 규칙을 따라서 드러져야 한다고 하는 말은, 기도를 할 때 ① 합당한 것들(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과, ② 살아 있는 사람들과, ③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하여 하되, ④ 죽은 자들과 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기도가 참된 예배의 규정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족장 시대로부터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함으로 드러졌다(창 20:7, 17).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민 21:7) 영감된

찬양과 찬송의 책임 시편에는 구약시대에 기도가 끊임없이 행하여진 것을 보여 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다(시 4:1, 6:9, 17:1).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은 “여호와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왕상 8:22-53). 신약에도 이 같은 참된 예배의 요소가 계속되었다. 그리스도는 열심히 개인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마 14:23), 교회의 회중을 마주 서서 또한 기도하셨다(요 17장). 기도는 사도 시대 교회의 공 예배의 불변의 요소였다(행 1:14, 2:42 등). 그리고 사도들은 모든 지역의 교회들에서 기도를 할 것을 명하였다(딤후 2:8, 살전 5:17, 엡 6:18).

구속 사업을 성취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의 중보의 직분들이 전적으로 그에게 속하게 되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다. 이로 인하여 모든 중보하는 일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8).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골 3:17).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를 위한 그의 대언이 모든 참된 기도의 근거가 된다.

참된 예배의 규정하는 원리(regulative principle: 명하여진 것은 옳고, 명하여지지 않는 것은 그릇되다)를 고려할 때, 참된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들을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도의 권면으로 입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 2:1, 2).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도는 많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기도들을 단지 암송하라고만 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기도해도 좋도록 되어 있다는 말도 아니다(이것 또한 거짓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난 기도를 하면서도 거짓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도움을 주시어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6, 27). 만일 우리의 기도의 형식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의 개별적인 요구나 소원이 기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그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기도는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규정지으셨다. 또한 이 말의 참뜻은, 참된 기도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형태는 언제나 주기도문의 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대요리문답』, 186-196). 모든 참된 기도는 이 구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서에 의한(또는 고정된 형식의) 기도들은 그릇되다. 왜냐하면 성령의 직접적인 도우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 특정한 사람들과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기도는 성경의 규칙에 따라서 드러져야 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약 4:3)고 야고보가 말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신다” 성경의 이 같은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 구할 때마다 “당신의 뜻이라면”이라는 말을 두고 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나 작정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가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과 같은, 하나님이 아직 계시하지 않으신 것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신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이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막 14:35).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기도할 때에는, “당신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만일 결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당신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문제를 진술하는 데 있어서 우둔하기 짝이 없는 방법임에 틀림없으나, 이같은 악이 너무나 흔하게 자행되고 있다. 자기네 친척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휼을 베푸시어 영원한 천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그가 계속 사악한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공휼을 베푸소서”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그릇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여 믿지 않는데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릇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는 그와 함께 있었던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그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요 17:20).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려해 볼 때(행 2:39), 위대한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규칙적으로 했던 대로,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는 하등에 기도할 이유가 없다. 만일 그들이 신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신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큰 구령이 끼어” 있기 때문에(눅 16:26) 그들에게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다윗은 그의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나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던 것을 중단했다(삼하 12장). 그는 말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라?”(삼하 12:22, 23).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여호와여 당신의 뜻이라면 그 아이를 살려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으나, 그 아이가 죽을 때, 그 아이를 살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의 아이는 죽음으로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소와 상태에 처하여졌으며, 그런 까닭에, 위하여 기도할 것이 못되는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있는 4항의 끝맺음하는 말은 참으로 난해하다. 만일 그것이 죽을 때까지 죄와 불신앙 가운데 남아 있었던 사람을 뜻한다고 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단지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것이다. ①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인가? ②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 어떻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가? 만일 집요한 불신앙과 구별되는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 궤방죄일 것임에 틀림없다(마 12:31, 32). 이것은 복음을 받고서도 죄 사함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죄이다(히 10:29, 6:6). 진리를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히 10:26), 하나님께서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면 그것은 최후적이며 고칠 수가 없다(살후 2:11, 12). 바울은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딤후 3:9).

우리가 믿기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마땅히 칭해져야 하는 죄가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진리를(유다처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백성들과 한 무리가 되어 동행하였던 사람이 의도적이고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런 사

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보다는 저주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시 69:22-28). 물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요 일 5:16).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같은 죄가 있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일이 없다.

【질문 55】

1. 기도와 감사가 참된 예배의 요소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구약과 신약의 증거를 들라.
2. 왜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드려져야 하는가?
3. 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을 들라.
4. 만일 참된 예배가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이라고 하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들만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5. 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을 들라.
6.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기도해도 괜찮다는 뜻인가?
7. 성경은 기도의 기본구조 또는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가? 어디에?
8. 모든 기도에는 “당신의 뜻이라면”이라는 구문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라.
9.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증명하라.
10.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할 자들은 누구인가? 증명하라.
11.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인가?
12. 어떤 개인이 이 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를 증명하라.

5항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¹⁷⁾ 전전한 설교와¹⁸⁾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¹⁹⁾ 마음에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과²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²¹⁾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²²⁾ 서원과²³⁾ 신성한 금식과²⁴⁾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²⁵⁾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²⁶⁾

6항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열납되는 것도 아니다.²⁷⁾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²⁸⁾ 성령과 진리로²⁹⁾ 예배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³⁰⁾ 매일³¹⁾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³²⁾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³³⁾

17) 행 15:21, 계 1:3. 18) 딤후 4:2. 19) 약 1:22, 행 10:33, 마 13:19, 히 4:2, 사 66:2. 20) 골 3:16, 엡 5:19, 약 5:13. 21) 마 28:19, 고전 11:23-29, 행 2:42. 22) 신 6:13, 느 10:29. 23) 사 19:21, 전 5:4, 5. 24) 욥 2:12, 예 4:16, 마 9:15, 고전 7:5. 25) 시 107편, 예 9:2. 26) 히 12:28. 27) 요 4:21. 28) 말 1:11, 딤후 2:8. 29) 요 4:23, 24. 30) 롬 10:25, 신 6:6, 7, 욥 1:5, 삼하 6:18-20, 뱀전 3:7, 행 10:2. 31) 마 6:11. 32) 마 6:6, 엡 6:18. 33) 사 56:6, 7, 히 10:25, 잠 1:20, 21, 24, 8:34, 행 13:42, 눅 4:16, 행 2:42.

제21장 5-6항의 교훈

- (1) 하나님이 정해주신 참된 예배의 요소들로는(기도 외에) ① 통상적인 것들(말씀을 전하는 것,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 성례 집행)과, ② 임시적인 것들(특별한 시기에 행하는 맹세·서원·금식·감사)이 있다.
- (2) 참된 예배는 마치 어떤 특정한 장소가 다른 장소들보다도 더 거룩하거나 한 것처럼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3) 참된 예배는 신령하고, 진리가 그 본질적 요소이다.
- (4)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예배와 가족 예배와 공중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며, 이 중에 어느 것도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밝힌바 있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이 적법하나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신적 계명이 없더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명하여진 요소들에 다른 예배의 요소들이 첨가될 수가 있으며, 이것들이 다같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는 예배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신앙고백서는 전자의 견해만을 따른다. 그러므로 성경에선 참된 예배를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에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예배의 요소들인가?

신앙고백서에 의해 인정된 참된 예배의 요소들로는 (『대요리문답』, 108에 보충되어 있는 대로) ① 기도, ② 성경 낭독, ③ 말씀 전파(설교), ④ 성례 집행, ⑤ 교회 권징, ⑥ 시편으로 노래하기(찬송), ⑦ 목회 활동을 위한 헌물 수납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들이다. 이 외에도 임시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① 종교적인 맹세와 서원, ②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③ 종교적인 금식 등이다.

기도에 대해서는 앞의 항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참된 예배에 있어서 서열상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듣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탁월한 위치를 차지했다. 바울은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7, 18). 참된 예배의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인하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증보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수단으로 “특별히 말씀”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란 요소에 좌우된다. 다소 다른 결함이나 불순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충실하게 전파되는 곳에서는 참된 예배가 전적으로 소멸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정당하게 집행되고 바르게 받아들여진 성례 또한 성경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는 성례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또한 세례 받을 것을 명하셨다(마 28:19). 그리고 성찬에 대하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고 그가 명하셨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와는 달리, 죄인들을 화개시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힘있게 해주고 확실케 하는 수단인 것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어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의 교회에서 계속 집행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례가 배제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순수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참된 예배의 또 다른 요소는 “마음에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신앙고백서가 현대의 찬송가들이 예배에 사용되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시편들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경 시편의 영감된 시와 찬미와 노래들만을 본래 사용했다는 것을 오늘날 흔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했던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시편들만으로 예배 때에 노래해야 한다는 확신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편의 운율을 보완 작성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문제를 논할 처지가 못된다. 다만 우리는 신앙고백서가 이 점에서 옳다는 우리의 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시편의 영감된 노래와 찬미와 시들 대신에, 또는 병행하여 사람들의 영감되지 않은 작사들로 자기의 교회에 노래하라고 명하신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징이 예배의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신앙고백서에는 그것이 분명한 요소로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요구되어 있는 것이다. 권징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전하는 일과 성례를 온당하게 집행하는 일을 보장해 줄 대비책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회의

권장이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집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엄숙한 예배의 명백한 요소인 것이다(고전 5:3-5).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참된 예배의 이같은 요소들과는 아주 달리, 많은 현대 교회들이 신앙고백서에 밝혀져 있는 예배의 원리에서 크게 이탈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설교)이 그 중심적 위치를 상실해 버렸다. 강단이 흔히 한쪽 구석으로 옮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형식주의, 정교한 기도식문(祈禱式文)과 날조된 예식들은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신봉하는 교회들에서마저도 설교가 흔히 영화나 종교 연극에 밀려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틀림없이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그릇된 예배의 요소들과 원리 면에서 똑같다는 주장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다. 로마주의적 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량의 미신과 오류는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은 금해야하는 규칙을 어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 확실하다.

참된 예배의 미점(美點)은 거룩과 진리이다. 인간적인 출처에서 비롯된 것은 신령한 예배의 영광과는 반대가 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신앙고백서에서는 예배 개념에 대한 인간적인 기예(human art)와 창작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행 17:29). 회막과 성전이 상징적인 “공교한 장식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출 31:1-11). 그러나 이것을 내세워 벽이나 유리창 등에 그리스도의 화상을 그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가건적인 것들로 되어있던 모든 의식(儀式) 체계가 폐기되었고,

둘째로, 구약에서 그 의식 체계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적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참조, 출 25:40, 28:3, 31:6, 35:30-35, 대상 28:11, 12, 19).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식 체계가 유효한 것으로 주장할는지 모르지만, 신적 영감에 의하여 본래 주어진 바로 그 상징들만이 정당한 것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만이 참된 예배에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구약 시대에서처럼 신약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요 4:21, 23, 단 6:10 등).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 일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 회집할 것을 명하지 않으셨다. 그런 까닭에, 참된 예배에 관한 어떤 것들은 인간의 결정 사항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신앙고백서에 밝혀져 있는 순수한 예배의 원리를 반대하는 많은 거짓된 주장은 이같은 사실에서 연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예배의 **요소들**과 예배의 **격식들**(*circumstances*)을 구별하지 못한 까닭에 생겨난 것이다. 신앙고백서 자체가 말하고 있는 대로(제1장 6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는, 어떤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예배의 격식들에는, 시간·장소·소요되는 시간의 길이·횟수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선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 규정하지 않고, 교회의 결정 사항으로 남겨두셨다. 그러나 예배의 요소들은 명백한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규정하셨다. 그러므로 이같이 구별된 것들은 혼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신앙고백서에는 참된 예배의 임시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한 언급되어 있다.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신성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와 같은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참으로 보증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그것들은 예배의 통상적인 요소들 가운데 열거되어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금식을 생각해 보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로마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 어떤 특정한 날

들과 시기들에 금식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금식이 그같은 기계적인 규정에 의하는 것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가 되는 것이다(참고, 막 2:18-20, 마 6:16-18). 이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정죄하셨다. 그는 또한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의 제자들이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다. 금식이 자발적이며 내면적인 신령한 욕구에서 되어질 것일 때에는(즉, 죄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 개인적인 긴박한 위기 등을 인하여), 그것은 참된 예배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예배에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 문제는 다양하다(참조, 삼상 7:6 이하, 31:13, 삼하 12:21 이하, 대하 20:3, 느 1:4 이하, 마 4:2 이하, 행 10:30, 13:2 이하, 14:23 등).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기 바란다. 금식은 그것이 자발적 또는 임시적으로 되어지는 참된 예배의 한 요소이긴 하나, 통상적인 예배의 고정된 요소는 아닌 것이다(맹세와 서원에 대해서는 제22장을 참조할 것).

【질문 56】

1.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임시적인 예배의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3. 특별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는 무엇인가?
4. 성례가 참된 예배의 요소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5. 신앙고백서에는 예배 시에 무엇을 노래하도록 되어 있는가?
6. 이 관례가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과거에도 “생소” 하였던가?
7. 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예배 시에, 사람들이 작곡한 영감되지 않은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8. 교회의 권징이 참된 예배에 왜 필수적인가?
9. 어떤 경우에 교회의 권징이 사실상 참된 예배의 요소가 되는가?
10. 어떤 현대적 흐름들로 미루어 보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앙고백서

에 밝혀져 있는 예배의 원리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11. 로마 교회적인 예배의 오류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12. 회막과 성전의 예술적인 상장을 내세움으로 해서, 예배를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꾸며 보려고 하는 현대 교회의 노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13.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한 어떤 것을 인간의 결정 사항으로 남겨 두셨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14. 예배의 “임시적” 요소란 무슨 뜻인가?
15. 금식이 예배의 고정된 정규의 요소가 되는 때에는 왜 참된 예배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가?

* * * * *

7항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레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³⁴⁾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³⁵⁾ 성경에는 이날이 주의 날(主日)로 불리어져 있다.³⁶⁾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³⁷⁾

8항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속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³⁸⁾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³⁹⁾

34) 출 20:8, 10, 11, 사 56:2, 4, 6, 7. **35)** 창 2:2, 3, 고전 16:1, 2, 행 20:7. **36)** 계 1:10. **37)** 출 20:8, 10, 마 5:17, 18. **38)** 출 20:8, 16:23, 25, 26, 29, 30, 31:15-17, 사 58:13, 느 13:15-19, 21, 22. **39)** 사 58:13, 마 12:1-13.

제2장 7-8항의 교훈

- (1)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다(자연계시와 특별 계시로).
- (2) 일주 1회의 안식일이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시까지는 순서에 있어서 일곱째 날이었다.
- (3) 부활 이후로는 첫째 날이 되었다.
- (4)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① 합당한 준비와 ② 세속적인 일이나 오락을 삼가고 ③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예배하며 ④ 경건을 도모하는 일, 부득이한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지켜질 것을 명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아홉 계명들은 그대로 보존시키는 반면에 제4계명을 기독교인의 의무의 영역에서 배제시키려고 헛되이 노력하였다. 이렇게 시도하게 된 데에는, 안식일이 “유대적”이라는 것과 구약의 의식법들과 함께 그것이 “끝났다”고 하는 주장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안식일은 의식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에 제정되어 있었다(창 2:2, 3).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위하여 정해 주신 것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일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의무가 있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의 규범(divine example)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인간이 육일 노동하고 하루 안식하게 되어있는 그 순서(sequence)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 사역의 웅대한 계획 속에 배정한 순서를 따라 되어진 것이다”(존 머리).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범이 인간의 의무에 부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4계명이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의식법을 계시하시기 전에, 그가 친히 돌판에 도덕법을 새겨 주셨다. 결코 오류를 범하실 리 없는 하나님

께서 의심할 여지없이 도덕법인 다른 아홉 계명들과 더불어 이 계명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4계명을 도덕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지 않으셨으며, 그가 그것을 다른 도덕법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가 그것의 성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제4계명의 구속력을 반박하는 가장 그럴듯한 논증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무시하셨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이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했던 어떤 그릇된 제한 규정들을 무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제4계명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을 때, 그의 대답은 제4계명이 폐기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구약을 들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마 12:1-13, 참조, 레 14:4-9, 삼상 21:6).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바룩 기록된 율법에 대한 위반이기는 하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유형의 일들은 안식일에 행하여도 적법하다는 것을 성경을 들어 그는 증명하셨다. 이같은 적법한 일들로는, 경건을 도모하는 일(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일로서, 예컨대 주일날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부득이한 일(즉 지체되면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로서, 예컨대 수렁에 빠진 소를 건지는 일이나, 불 끄는 일을 돕는 일),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예컨대, 병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 등이 있다. 예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定)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7, 8)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주께 의무(본분)를 다하는 대신에 안식일에게 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안식일의 참뜻을 왜곡시켰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에서 위치를 정해주었다. 즉 그 자신이 통치권(lordship) 하에 안식일을 예속시켰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켰다. 만일 세상에 아무 죄와 재난이 없었다고 하면, 안식일에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창조가 끝났을 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재난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속(救贖)받도록 되어 있을 경우, 이 안식일이 “범하여” 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행하시던 때에 범하여지게 되고 말았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히 4:10). “새로운” 안식일이 있게 된 바로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전 안식일에 이 같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히 4:8).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굳혀졌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히 4:9).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범은 안식일에 경전을 도모하는 일과,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여도 무방하다. 아니 오히려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세심히 유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 반드시 성경을 들어 입증하셨다는 점이다(요 7:22-23).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안식일을 더럽힌 죄에 대한 사형(死刑)이 폐기된 것으로 보아, 제4계명이 더 이상 신자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시민법(도덕법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제재를 요구한)과 도덕법을 혼동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것이 그릇되다는 사실은 쉽게 밝힐 수 있다.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의하면 제5계명(출 21:17, 신 21:18 이하), 제7계명(신 22:22), 제2계명(신 13:10) 그리고 여타의 계명들(레 24:10-23)을 범하는 경우에도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 시행된 시민법상의 형벌들이 단지 “열국(列國)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도덕법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범해도 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4계명만 달리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면 안식일이 주(週)의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된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가? 제칠일 안식 교회는 제4계명이 주(週)의 일곱째 날을 주(主)의 안식일로 지킬 것을 영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의하여 반증된다.

첫째로, 제4계명은 “일곱째 날을 기억하라”고 되어있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되어 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란 비율과 순위 간의 구별에 있다. 그 계명은 한 주간의 옛새는 ‘A’ 라는 의무를 위하고, 그 주간의 마지막 부분 - 즉, 정확히 말해서 7분의 1은 ‘B’ 라는 의무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칠일 안식교회의 주장은 헛된 것이다. 제4계명이 시간의 순위상 일곱째 날을 기억하라고 명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비율상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제4계명이 우리의 시간의 일곱째 부분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週)의 첫째 날(날들의 순위에 있어서)을 안식일로 지키지 못할 이유가 이 계명에는 전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週)의 첫째 날 또한 시간의 비율에 관한 한, 일곱째 날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도 시대의 교회가 “주(週)의 첫째 날”(날들의 순위상)을 일곱째 부분, 즉, 안식일로 지켰다(참조, 마 28:1, 막 16:2, 눅 24:1, 요 20:1, 19, 행 20:7, 고전 16:2, 막 16:9, 계 1:10).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아무튼 우리의 안식일이 사도 시대 교회에 의하여 지켜졌던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와 사도들의 사이에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때에 그 주기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교회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표징」이라고 선언하셨다(출 31:13-17, 겔 22:26).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참된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부단히 계속될 것임을 약속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식일을 상실하지도 않은 것이고 앞으로도 상실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게 보증되는 것이다.

안식일을 합당하게 준행하려면, “다른 날들에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세상적인 생업들과 오락들을 삼가하여 그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쉬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시간을 보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소요리문답』, 60). 제4 계명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해 놓은 것으로는 『대요리문답』, 115-121 문답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이다.

여기서는 원리들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1) 안식이라는 단어의 기초적인 의미는 ‘중지(中止)’이다. 안식한다는 것은, 이 계명의 의미에서 보면, 잡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을 계속 즐긴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생업이든 오락이든 간에 옛새 동안 우리가 몰두해 온 모든 일들을 중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옛새 간의 날들에는 죄악된 일들을 해도 괜찮고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옛새 동안의 날들에 우리가 전심전력한 선한 일들마저도 이날에는 제쳐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텔레비전 시청, 신문과 잡지를 읽는 것, 운동과 여행하는 것 등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하나,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등에 전적으로 하루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식일에는 적합지가 않다.

(2) “부득이한 일”의 의미가 이 계명을 다룸에 있어서 흔히 오해되고 있다. 부득이한 일이란 편의상 필요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기독교인의 고용주가 주일 날 그에게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일을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감봉 처분당할 거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이유로 해서 어떤 일이 부득이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편의상의 일이 될 뿐이다. 만일 어떤 의사가,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수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경우라면, 그것은 부득이한 일에 속한다. 그러나 어떤 목수가, “건축 일에 대하여 출두 보고하지 않으면 내 직업이 위태롭

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경우라면, 그는 그 자신의 편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 일 자체가 부득이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개인적인 불편이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단순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안식일에 어떤 일을 부득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도둑질하는 것(내 가족에게 돈이 필요하므로 나는 도둑질을 해야 한다)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질문 57】

1. 무슨 근거로 루터파와 같은 교회들이 제4계명을 지키는 의무 조항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가?
2. 제4계명, 의식법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3.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대의 안식일에 대한 법들을 무시했는가? 설명하라.
4.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기의 행동들을 정당화했는가?
5.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하는 것을 인정한 세 가지 유형의 일은 무엇인가?
6.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무엇을(또는 누구를) 섬겼는가?
7.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무엇을(또는 누구를) 섬겼는가?
8. 제칠일 안식교회는 무엇을(안식일에 관하여) 주장하는가?
9. 이 입장은 무슨 증거에 의하여 논박되는가?
10. “안식”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11. 우리는 무엇을 중지하고 “쉬어야” 하는가?
12. 부득이한 일과 편의상의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